

소상공인 77% “매출 정체·감소”...고정비 최대 애로

한경협 조사...원자재·임대료·세금 부담 가중 희망 지원정책 1위 ‘인건비 등 경영비용 완화’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진행한 소상공인 실태 조사(1000명 응답) 결과 10명 중 8명(77.1%)은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예

상 매출이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이익, 성장률 등 경영 성과와 전망에 대한 물음에도 절반 가까이(46.5%)는 나빠졌을 것으로 답했다. ‘다소 악화’는 27.3%, ‘매우 악화’는 19.2%였다.

경영 성과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9.8%

(다소 개선 16.3%, 매우 개선 3.5%)에 그쳤다.

성과 악화 배경으로는 원자재·임대료 부담 증가(39.3%), 세금 부담(21%), 수수료·물류비 부담(14.9%)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에게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자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43.4%), 경쟁 심화(25.4%), 마케팅·홍보 어려움(17.1%)이라는 답이 많았다.

소상공인 가운데 온라인 셀러·글로벌 진출형의 경우 마케팅·홍보 어려움(각 39.2%·32.1%)을 특히 많이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높은 수수료·광고비가 4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출 알고리즘·정책 변화 대응 어려움(15.9%), 고객 응대·리뷰 관리 어려움(13.3%) 등이었다.

플랫폼에 바라는 실질적 지원으로는 마케팅·광고비 공동 지원이 35.6%로 가장 많았다. 또 물류·배송망 공동 활용(풀필먼트 포함)(16%), 국내외 플랫폼 입점 연계(15.2%),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교육 및 솔루션(14%) 등이 꼽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 정책은 임대료·인건비 등 경영비용 완화가 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규제 완화(21%),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14%), 법률·세무·인종 등 전문가 컨설팅(13.6%) 등 순이었다.

한경협은 이처럼 경영 부담이 심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돕는 민관 합동 상생 행사 ‘강한 소상공인 상생ON페어’를 11~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연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내외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이 공동 주최한다. 동남아 지역 1위 플랫폼인 쇼피에 참여한다.

한경협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미래의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주역으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이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AI 기술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굴소스 대체할 다용도 ‘무 조미소스’ 개발

전남농업기술원, 무 소비 다변화...채식·비건 시장 공략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가을 무의 품미와 감칠맛을 극대화한 조미소스를 개발했다.

무 조미소스는 굴 소스를 대체할 다용도 식물성 조미소스로, 무 특유의 맛 성분

을 농축한 ‘무 농축액’을 핵심 소재로 사용했다. 조리 활용도와 건강성을 모두 갖춘 식물성 기반 제품으로, 급성장 중인 채식·비건 시장 공략에 기대된다.

특히 이변 기술의 핵심인 무 농축액 제

조기술은 무의 시원한 맛을 내는 식이항 화합물 함량을 60배 높인 것이다. 감칠맛을 내는 유리아미노산도 1.3배 이상 증가시켰다. 단맛 성분도 자연 그대로 유지해 무 고유의 품미와 천연 단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무 농축액을 베이스로 간장, 표고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해 비건 식단은 물론 아이 반찬, 안주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소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된장, 파스타, 어묵탕 등 맞춤형 레시피북도 함께 제작했다.

그동안 무 가공품은 김치·절임류에 편중돼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무의 소비 다변화와 부가가치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서,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변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탄소 함께 줄여요” 오비맥주 협력사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하며 지속가능 방향 모색

오비맥주는 협력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포장재·원재료·물류 등 주요 분야에서 오비맥주와 협력하는 30개사 관계자, 오비맥주와 아시아 본사(버드와이저 APAC) 임직원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협력사들의 탄소감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동원시스템즈는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목표,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탄소감축 로드

맵을 발표했으며,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SaaS) 기업 후시파트너스는 올해 오비맥주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 4차 배출권 제도를 설명하며 기업의 감축 의무 강화 내용을 안내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동원시스템즈, 한일제관 등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12개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농기원, AI·친환경농업 전문인력 키운다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전남의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전남생명농업대학’이 내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농업 확산이라는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실전형 전문농업인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AI농산물마케팅 20명 △친환경농업 20명 등 총 40명을 모집한다.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론·실습을 병행한

집중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AI농산물마케팅 과정은 급변하는 유통·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농업 실천 과정으로 구성된다. ChatGPT 활용법, 라이브커머스 운영, 유튜브·숏폼 제작, 스마트스토어 구축, SNS 기반 소비자 소통 전략 등 농업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콘텐츠가 중심이다. 친환경농업 과정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고부가가치 작목 확산에 초점을 둔다. 아쿠아포닉스, 큐브·스마트팜 시설 등 첨단 재배 시스템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강화하고, 기능성 특수작물 재배기술 등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현구 기자 gnnews1@



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광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박형국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 회장(가운데)을 신임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형국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연합회장 선출

박형국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 회장(60)이 광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박형국 회장이 제4대 광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출범한 광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상인조직으로, 광산구청, 광주시의회 등과 협력해 상권 환경 개선, 온누리상

품권 가맹점 지원,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쌍암동에서 달봉이회수산을 운영하며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앞장섰다.

박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 간이며, 이·취임식은 내년 1월 광산구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국 신임 회장은 “상인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광주신세계, 덴마크 브랜드 ‘가니(GANNI)’ 신규 오픈 (주)광주신세계는 11일 본관 4층에서 덴마크 대표 컨템퍼러리 패션 브랜드 ‘가니(GANNI)’를 신규 오픈했다. 가니는 오픈을 기념해 30% 할인 프로모션과 100만원 이상 구매 시 헤어 슈슈를 선착순 증정한다. 가니는 편안한 실루엣과 유니크한 컬러 패턴을 바탕으로 일상 스타일에 특별함을 더하는 모던 감성 디자인을 선보이며 MZ세대에서 인기가 높다.

PRIMUM LIGHTING SYSTEM

EXVISTA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은 진우엘텍!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진우엘텍 ONE-STOP 서비스

자사의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를 통해 고객은 조명의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확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01
고객 상담
및 의뢰 | > | 02
현장 답사
및 설계 | > | 03
제품
생산 | > | 04
제품
시공 | > | 05
유지
관리 |
|---------------------|---|---------------------|---|----------------|---|----------------|---|----------------|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90
홈페이지 :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